

사회



지난 8일 곡성군 전남과학대에 마련된 '2009 전남도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한 전남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미국에서 온 원어민 교사와 쿠키 굽기 체험을 곁들인 영어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작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르포 ... 전남도 영어체험캠프 참가 초등학생들

“영어로 장난치니 재밌어요”

농·산·어촌 어린이 619명 7박 8일 수업

美 원어민 교사 70명 ... 퀴즈놀이 등 다채

“Hi”, “May I help you?”(안녕하세요, 빌 도와드릴까요?)  
광주·전남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8일 곡성군 전남과학대 교정. ‘2009 전남도 영어체험캠프’라고 쓰여진 교정에선 초등학생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영어캠프 수업이 열린다는 강의실로 가던 중 곳곳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은 손을 흔들며 “Hi”라고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아이들은 “May I help you?”를 외치며 다가오기도 했다. 발음도 어색하고, 문장구성 능력도 떨어졌지만, 한국어 영어의 ‘최대 결함’인 ‘영어 울렁증’ 만큼은 사라진 듯했다.  
5층 강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아이들의 영어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한 아이는 남자 원어민 교사의 팔에 덩수룩하게 나 있는 털을 잡아당긴 뒤 “What is this?”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 장난을 치기도 했다.  
지난 7일 영어체험 1캠프인 전남과학대에 입소한 156명의 아이들은 불과 하루만에 파란눈의 외국인 선생님과 스스럼없이 장난을 칠 정도로 적

응된 모습을 보였다.  
우리 실습을 겸한 영어수업이 한창인 학교 조리실에선 원어민 교사가 밀리 스피스(여·23)씨와 학생 10여 명이 ‘쿠키’ 만들기에 흠뻑 빠져있었다. 스피스씨는 “아이들의 배울려는 자세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5층에 있는 ‘취미’를 주제로 한 강의실에선 또 다른 학생 10여명이 영어로 퀴즈 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수업은 히잡을 쓴 오마이마 후세인(여·21)씨가 진행했다.  
한국인 2세인 후세인씨는 이번 캠프에 어머니 한선숙(43)씨와 함께 참가했다.  
지난해 영어캠프에도 참가했던 한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간 교포로, 중등인 남편과 결혼을 했다. 어머니의 고향을 처음으로 방문한 후세인씨는 “어머니의 모국이자, 나의 나라이기도 한 한국의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떠날 생각”이라며 활짝 웃었다.  
후세인씨의 수업에 참여한 이홍식(12·구례 청천초 6년)군은 “외국인 선생님님과 직접 대화를 해보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첫날만 해도 (외국인)선생님들이 어렵고, 무섭기도 했는데 이전 너무 친근하고, 수업도 재밌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캠프에 참가했다는 정민경(12·순천 봉화초 6년)양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혼자 참여해 외롭지 않을까 걱정도 됐는데,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다보니 많이 가까워졌다”며 만족해했다.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 ‘전남도 영어체험캠프’는 전남과학대와 전남도립대, 대불대, 목포해양대, 전남도청 소년 수련관 등 5곳에서 619명의 초등학생 6학년생들이 7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간 영어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오전 7시에 기상해 하루 9시간씩 수업에 참여하고, 밤 9시 전 취침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는 미국 미주리대와 포틀랜드 주립대에 서 온 70명이며, 대부분이 양 대학을 졸업한 현직 중·고교 교사다. 그만큼 교육의 내용이나 질도 다른 영어캠프를 압도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과학대내 영어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송운성(68) 캠프장은 “영어 캠프의 목적은 도시에 비해 교육 혜택이 덜 한 농·산·어촌 아이들에게 영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뱅킹 통해 4천여만원 빼갔다

광주 모 금융기관 통장서 6개 은행 분산 이체...경찰 수사

광주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수천만원이 다른 사람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이 인터넷 뱅킹 사고로 드러날 경우 올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여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사건 발생=10일 새벽 2시17분 광주시 동구 모 금융기관 지점에 개설된 J부역업체 김모(54) 대표의 계좌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600만원이 이체된 것을 시작으로, 오전 6시 25분까지 10차례에 걸쳐 4천130만원이 6개 은행 계좌로 빠져나갔다.  
이체된 돈은 경기도 부천과 부평 일대 은행 및 편의점 CD기에서 전액 인출됐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경리와 직원 김모(39)씨는 경찰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용의자들이 전날 밤 11시40분께 김 대표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 뱅킹을 한 뒤 돈을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술했다.  
◇인출 경로는=경찰은 서너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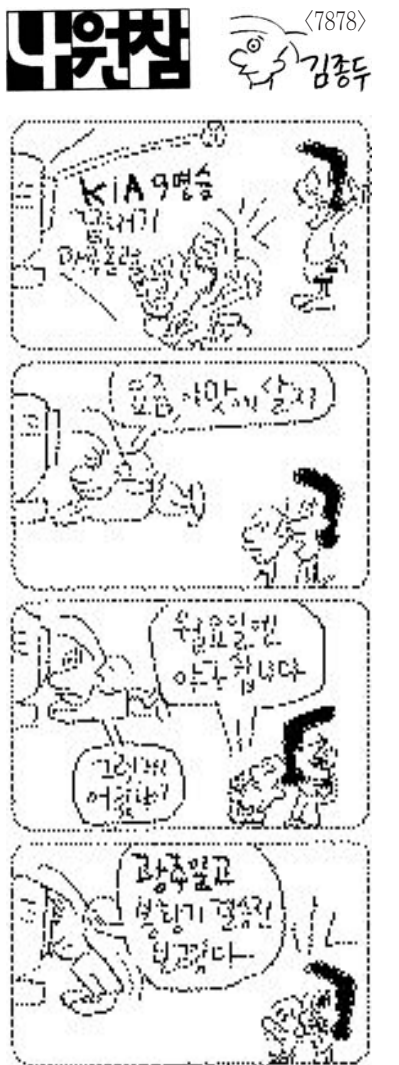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펴고 있다. 실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 계좌 및 은행 전산망이 인터넷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 업체나 금융기관 내부인 소행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 등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고,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는 “불과 몇 시간 안에 2개의 금융기관을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과 4천만원을 노리고 전산망을 해킹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 대표의 통장에서 돈이 이체된 6개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이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현금 이 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CTV 기록을 확보해 용의자를 뒤쫓을 계획이다.  
◇피해 보상=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당사자와 금융기관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모두 10건의 인터넷 뱅킹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번 신고가 같은 유형으로 밝혀질 경우 단일 건으로는 피해 규모가 가장 크고 광주·전남에서는 초유의 사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명박 정권 퇴진”

남총련 70여명 기습시위

광주지역 대학생 70여명은 10일 새벽 5시에 광주시 북구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등으로 알려진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는 날치기법을 통과시키고, 쌍용차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살인적으로 탄압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현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노부부 흥기 강도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10일 노부부가 사는 주택에 침입해 흥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이모(35·광주시 북구 각화동)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전과 17법인 이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동구 산수동 이모(80)씨의 집에 침입해 노부부를 폭행한 데 이어 반항하는 이씨의 엉덩이를 흉기로 3차례 찌른 뒤, 방에 있던 현금 450만원과 금 10돈을 빼앗은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남해 선원 인권유린 심각

서해해경청, 17명 검거 ... 폭행·상해 많아

전남 서남해지역 해상에서 근무 중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지난 6~7월 서남해 해상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침해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14건으로 전체의 82.4%에 달했고, 임금착취, 무허가 작업소개, 외국인여성 성폭행 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해양경찰 등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선과 양식장 등에서 종사하는 수산업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사태가 여전한 것이다.  
목포해양경찰은 10일 사소한 이

유로 선원을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한 목포선적 어선 A호 선장 손모(36)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5일 ‘버릇을 고쳐 주겠다’며 선원 문모(39)씨를 둔기로 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선원 김모(55)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구모(38)씨가 무안군 해면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중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어선 B호에서 동료 선원 이모(41)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구속됐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상가분양권 미끼 돈 가로챈

前 주공 직원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0일 상가와 택지 분양권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전 직원 김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A(53)씨의 사무실에서 “모 택지지구 단지 내 상가부지를 선분양 받으면 4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분양 신청금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2006년 6월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모 택지지구 내 무허가 주택을 사면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3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0월 면직됐다.  
/김형호기자 khh@

대학 건물 옥상서 속식 상습 절도

○광주동부경찰은 10일 광주권 대학을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최모(36)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25일 광주 모대학 고시실에서 현금 3만원 등이 들어있던 김모(여·22)씨의 핸드백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76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에서 최씨는 “대학건물 옥상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이불 등을 준비해 놓고 살면서, 옷가지와 현금 등을 훔쳐 생활해왔다”고 진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그림 100원도 바깥팔주먹 보급사업) <정부무심보조사업(100가구 선착순)>  
\* 전국 최초!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신규 사업! 전국 최초!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신규 사업!  
\*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  
\*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  
\*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  
\*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 설치비용 부담 최소화!

**방수와 단열이 하나로**  
IPALD 스마트폼이 걱정없이 하수방수!  
\* 방수, 단열, 보온, 방충, 방음, 방진, 방열, 방습, 방음, 방진, 방열, 방습, 방음, 방진, 방열, 방습!  
\* 방수, 단열, 보온, 방충, 방음, 방진, 방열, 방습, 방음, 방진, 방열, 방습!  
\* 방수, 단열, 보온, 방충, 방음, 방진, 방열, 방습, 방음, 방진, 방열, 방습!